윤활소식

S K (주)

"제13회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시상식 개최

13만 2천여편 응모하여 역대 최대 240:1의 경쟁률
입상 어린이들은 푸짐한 상품과 함께 환경 체험여행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 직접 체험

SK주식회사(대표 신헌철:www.skcorp.com)는 7월 19일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제 13회 SK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시상식을 회사 관계자와 입상어린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SK주식회사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소년한국일보가 후원하는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았으며, 총 13만 2천 382편의 응모작 중 입상작은 총 550여편으로 경쟁률이 약 240:1에 달했다.

올해 대상은 고학년부의 (환경부 장관상) 이나영 어린이(속초월운초/6학년)와 저학년부의 이지인(승학초/2학년) 어린이가 차지해 상장과 장학금 100만원과 함께 2박3일간의 환경체험여행을 부상으로 수상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활 속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는 취지 하에 실시되는 SK주식회사의 환경캠페인의 일환인 'SK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환경의 날(6/5) 공식행사로 적극 활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SK주식회사 황규호 전무는 시상식에서 "SK주식회사는 40여년간 환경경영을 선도해온 회사로서 특히 울산대공원을 조성해 울산시에 무상 기부했으며 2차 추가공사가 마무리되는 2006년 4월쯤에는 자연학습, 환경테마놀이, 가족피크닉, 청소년시설 등 환경교육의 대표적인 장으로 활용될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울산대공원, 환경글짓기 대회, 울산 컴플렉스 환경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어린 학생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SK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는 1994년 첫회에 비해 응모작이 약 100% 증가되어 역대 최대 응모 작품수를 기록하는 등 바야흐로 SK주식회사의 'SK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가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브라지리에서 유전개발 성공, 해외유전개발 가속도

브라질 BM-C-8 광구 상업성 확인, 5천만 배럴 이상 매장 추정

윤활소식

83년 이후 꾸준한 석유개발 투자 결실

SK주식회사가 국내 최초로 브라질에서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SK주식회사(대표:신헌철, www.skcorp.com)는 5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이 추정되는 브라질 BM-C-8 광구의 상업성을 확인하고 개발단계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동 광구에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추정 매장량 중 약 2천만 배럴이 SK㈜의 몫이다.

브라질 BM-C-8 광구는 브라질 리오 데 자이네루 동쪽 250Km 해상에 위치한 광구로, SK㈜는 지난 2000년9월 미국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인 데본에너지(Devon Energy)(지분율 60%)와 함께 광권을 취득해 탐사 및 개발을 진행해 왔다.

양사는 광권 계약 체결 후, 3개의 탐사정과 2개의 평가정 시추를 통해 탐사 및 평가작업을 진행한 결과 5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 추정 매장량을 확인했다. 금번 상업성 확인에 따라 2006년 초부터 하루 5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생산설비 건설에 착수해 2007년 하반기부터 상업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권계약에 따라 SK㈜/데본에너지 양사는 BM-C-8 광구에서 향후 27년간 원유를 개발/생산할 수 있다.

SK㈜ R&I(Resources & International, 자원 및 해외사업)부문 유정준 전무(부문장)는 "SK주식회사는 1983년 최초로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라는 목표를 갖고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왔다"며 "특히 '98년 최태원 회장 취임 이후 亞太지역 에너지/화학 新메이저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전략에 따라 자원개발 투자를 보다 강화한 것이 최근의 베트남, 페루 등에 이어 브라질 광구에서도 개발에 성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 평가했다.

SK주식회사는 BM-C-8 광구 외에도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때 광권계약을 체결한 BM-C-30 및 32 광구 개발 프로젝트에도 미국의 데본에너지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브라질 유전개발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SK주식회사는 국내 최대 민간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업체로 1983년 인도네시아 카리문 광구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총 23개국 53개 석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현재는 전 세계 11개국 19개 광구에서 원유/천연가스를 탐사/개발/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소비량의 140여일분(약 40%)에 해당하는 3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하루 2만4천 배럴의 지분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SK㈜는 페루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카자흐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등 3대 지역을 석유개발 전략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고,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여 2010년에는 보유매장량 7억 배럴,

윤활소식

1일 생산량 10만 배럴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SK㈜의 계획은 작년 리비아와 페루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상업생산을 개시한 데 이어, 올해 브라질에서 또다시 상업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유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인천정유 인수 양해각서 체결

중국시장 발판으로 아·태 지역 메이저로 도약

고도화 설비 투자 및 강력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조기 정상화 가능

SK주식회사(대표 신헌철, www.skcorp.com)는 인천정유와 인천정유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회사채 인수(각각 1조6천억원)를 골자로 하는 '인천 정유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채의 인수 발생시기 및 조건은 인천정유의 자금 수요,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MOU체결로 SK㈜의 인천정유 인수가 본격화 됨에 따라 SK㈜는 '아·태 지역 에너지·화학 메이저로의 도약'이라는 중장기 목표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인천정유 고도화 시설 투자로 조기 정상화

인천정유 인수와 관련하여 SK㈜는 "고도화 설비를 포함한 전략적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정유 정상화를 이루어 양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입찰금액에는 이러한 중장기 사업계획에 필요한 투자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입찰 금액 중 채권단에 돌아갈 8~ 9천억원 외에는 전부 인천정유에 남게 된다.

SK㈜는 "인천정유 고도화 시설은 수년 이내에 가동이 될 것"이라며 "SK와 중복투자가 없도록 최적의 고도화 시설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시너지 효과, 투자 비용 상쇄하고도 남아

SK(주)는 "원유 도입 및 제품 수출입, 물류, 마케팅 등 사업 전 과정에 있어 양사간 최적 운영체계를 통해 얻게 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는 투자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자신했다.

SK㈜는 인천정유 인수를 통해 양사의 생산, 트레이딩, 수송·저유 등의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정유 현존가치 9천억원과 고도화시설 투자 효과 등을 포함하면 투자가치는 투자비용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SK㈜는 세계 각국에 수출할 정도인 자사의 정유 공장 운영 노하우와 고도화 시설 투자로 인천정유의 경영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윤활소식

중국 수출 강화로 아·태 지역 메이저로 도약

아울러 SK㈜는 인천정유 인수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에 기여하는 폭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국내 영업망이 부실한 인천정유가 생산하는 물량을 중국 수출로 돌리겠다는 것. 실제로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 내 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다. 공급과잉인 국내시장과 달리 설비부족으로 수요가 넘치는 중국에 수출물량을 쏟아 내겠다는 것이다.

중국 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현재 하루 평균 700만 배럴 정도. 2010년까지 87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이며, 이어 2015년에는 1천만 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중국 내 생산량은 하루 평균 400만 배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SK㈜는 중국지역 판매물량 확대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수익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SK㈜의 지난 해 중국 수출액은 2조2,2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17조 4천억원 중 13%에 달한다. 금년 상반기에는 1조4,249억원을 수출했으며, 연말까지는 3조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SK㈜가 인천정유의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중국 수출로 돌리게 되면 수출 비중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편 SK㈜는 현재 매출액 기준 수출비중이 45%로 2008년까지 이를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인천정유 인수로 목표 달성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SK㈜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내에도 세계 수준의 석유 메이저가 있어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에 따른 거시적인 안목의 인수 목적을 덧붙였다.

SK㈜ 신헌철 사장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 국제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석유메이저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 추세를 타고 있다"며 "SK㈜도 '아·태지역 메이저 플레이어로의 도약'을 중기 전략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인천정유 인수가 그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K㈜ 측은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존사업의 수익을 확대해 이를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등 선순환적 연결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인천정유 인수를 통해 시노펙(279만BD), CNPC(170만BD), 신일본석유(117만BD)에 이어 아·태지역 4위 석유메이저(108만5천BD)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여력 충분, 배당정책 유지

한편 자금조달에 대해 SK㈜는 "최근 양

윤활소식

호한 업황과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통해 현금창출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자산의 처분, 외부차입금 조달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정된 현금흐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창출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고, 주주에 대한 배당정책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을 일축했다.

LG-Caltex 정유(주)

환경마크인증 3개부문 획득!

GS칼텍스는 친환경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2005년 한국환경마크협회로부터 아래 3개 부문에서 환경마크를 인증받았습니다.

- SIGMA GX-1(가솔린 엔진오일)
- SIGMA DX-1(디젤 엔진오일)
- MOTIX 2(2행정 엔진오일)

환경마크(표지)제도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환경마크 3개부문 수상을 통하여 회사 윤활유 제품의 친환경 엔진오일로서의 우수한 성능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회사 윤활유 부문은 상기 제품 외에도 매연을 현저히 줄여주는 smokeless 타입의 2-cycle 엔진오일 '예취기' 및 우수한 검댕(Soot) 분산성으로 배기가스 감소에 기여하는 디젤 엔진오일 'SIGMA Turbo RV',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생분해성 유압유 'Panolin' 등과 같이 친환경 제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동수 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허동수 회장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은 정유업계 최초는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도 손꼽히는 수훈이기에 개인은 물론 회사로서도 영예로운 수훈이 아닐 수 없다.

일반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으로 알려진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수훈 배경과 의의.

KBCSD 창설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앞장

허동수 회장은 지난 2002년 3월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창설해 기업의 패러다임을'사회공존'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국가적 환경현안에 대한 기업의 개선사항을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구축에 기여한공적을 인정받아 이번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이는 환경을 보전하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KBCSD는 세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와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와의 연계를 추진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한편, 국가적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를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허동수 회장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정유산업을 주축으로 GS칼텍스를 성장시켜 왔으며, 특히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해 세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저감을 위한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시스템을 도입,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노력 등 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해 왔으며, 모든 굴뚝에 오염물질 자동측정기(Tele Metering System)를 설치해 대기질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폐수 재활용 시동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폐열회수 보일러를 처음으로 가동해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막대한 열을 회수,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평생 에너지 한 길을 걸으며 국내 에너지 업계를 선도해 온 허동수 회장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상용화시키며, 청정연료인 LNG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종합에너지 서비스 리더'의 면모를 만방에 과시한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종합에너지 리더의 면모 과시

허동수 회장은 1973년 GS칼텍스에 입사한 이래 1994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국내 정유산업의 친환경적 변화를 주도한 '에너지 전문가'다. 연세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이어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는 등 전문적인 이

론적 기반 위에서 30여 년 동안 에너지 한 길을 걸으며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세계적 경영흐름을 꿰뚫는 국제감각과 결단력으로 대규모의 친환경 설비시설 투자를 주도해 정유산업의 환경성 확보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연료전지 개발사업, LNG 및 전력사업 등의 친환경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의 환경친화적 경영활동을 전개하며'종합에너지 서비스 리더'의 위상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환경부로부터 3회 연속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업계에서 유일한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환경미술대회, 어린이글쓰기대회,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환경 보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수훈 후, 리셉션장에서 수상자 대표로 건배 제의를 하며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선언한 즈음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자리를 함께한 임직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GS칼텍스를 성장, 발전시켜 왔기에, 오늘의 이 영광을 모든 GS칼텍스 가족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말하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환경과 안전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종합에너지 서비스 리더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KBCSD란 무엇인가?

KBCSD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현하며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2년 3월 허동수 회장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SK 등 33개 회원사의 CEO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세계적 산업계 조직인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속가능 발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하는 한편,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속가능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인체(www.kbcsd.or.kr)이다.

허동수 회장 역대 수훈 경력은?

허동수 회장은 2000년 3월 15일 제2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

윤활소식

훈했다. 수훈 공적은 정유업계에서 28년간 몸담고 있는 동안 제2차 오일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와 제품수출을 주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석유화학사업 진출, 정유시설의 고도화 추진, 국내최초의 휘발유 브랜드 도입, CI/RI 혁신을 통한 경쟁력 배양 등의 그 동안 이룩한 업적과, 최근 6시그마 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경영혁신활동을 진두 지휘하여 회사를 21세기 세계 초우량 토털 에너지 서비스 회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탁월한 경영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 1995년 3월 3일 조세의 날 기념식장에서 모범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훈 공적은 회사가 국내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월드컵유치를 위해 10억원을 공익 신탁하는 등 공익사업에 솔선수범하고, 또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수훈하게 되었으며, 이 밖에도 1985년에는 국민산업포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란?

일반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훈장인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1등급은 무궁화장, 2등급은 모란장, 3등급은 동백장, 4등급은 목련장, 5등급은 석류장이라고 한다.

GS칼텍스 엔진오일의 새이름, Kixx!

그동안 SIGMA 브랜드로 고객여러분을 찾아갔던 GS칼텍스 엔진오일이 'Kixx'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Kixx는 GS칼텍스의 통합 브랜드로, 영어 단어 Kick에서 유래되어,

빠르고, 강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새로운 엔진오일 Kixx에도 고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Kixx

S-oil(주)

합성엔진오일 "SSU GXO" 환경마크 획득

친환경 엔진오일

연비개선, 폐유발생저감

윤활소식

- 연비개선, 오일 교환주기 연장 및 대기 오염물질 저감성능의 탁월함 인정받아

S-Oil은 자체 생산·판매하고 있는 가솔린용 합성엔진오일 "SSU GXO"가 국내 최초로 최신 엔진오일규격인 API SM 규격 인증을 받은데 이어 환경마크협회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S-Oil이 자체 생산하고 있는 고점도지수(VHVI) 윤활기유인 Ultra-S에 최신의 첨가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가솔린엔진오일 "SSU GXO"는 국내 최초로 최신 엔진오일규격인 미국석유협회(API)의 API SM 규격과 윤활유국제표준화인증위원회(ILSAC)의 GF-4 규격을 인증받은 100% 합성엔진오일이다.

환경마크협회의 심사 결과 S-Oil의 "SSU GXO"는 연비개선, 오일 교환주기 연장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 친환경 석유제품으로 선정되었다.

환경마크제도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저감시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S-Oil은 1994년 국내 석유제품 중 최초로 청정등유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으며 금번 환경마크 취득으로 정유업체 중 가솔린엔진오일 분야에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S-Oil 관계자는 "품질고급화와 친환경제품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앞장서온 S-Oil은 이번 SSU GXO의 환경마크 인증 획득으로 환경친화형 기업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쉘석유(주)

동아대학교에 장학금 전달

한국쉘석유주식회사(대표: 김동수, 이하 한국쉘)의 부산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이 3년째에 접어들었다.

한국쉘은 19일 동아대학교(총장 최재룡, 부산 하단동 소재)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학교에 총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대학생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에게 전해진다.

회사는 지난 2002년 한국해양대학교, 2003년 부산대학교 및 부경대학교에 이어 올해까지 총 24명의 부산지역의 모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쉘 김동수 사장은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성장, 발전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은 당연한 책무"라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인재를 지원,

윤활소식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계속 이바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쉘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인 로얄더치/쉘 그룹(Royal Dutch/Shell Group)의 일원이다. 지난 1960년 설립되어 현재 자동차용, 산업용, 선박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및 그리스 제품을 생산, 판매, 수출하고 있다. 투명 경영과 지속적인 사회투자 사업을 실천하여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으로 경실련이 선정하는 '경제정의기업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소백산국립공원을 가다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佳谷面)과 경북 영주시 순흥면(順興面)의 경계에 있는 국립공원.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립공원의 중심이 되는 소백산 비로봉(1,439m)은 북쪽으로 국망봉(國望峰),

남쪽으로 민배기재와 연봉을 이루어 예로부터 태백산(太白山)과 함께 신성시되는 산입니다.

서쪽으로는 고위평탄면에 해당하는 비교적 반반한 고지가 펼쳐지고, 그 사이를 고수리(古藪里) 부근의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국망천이 흐르면서 어의실[於衣谷]을 기점으로 하는 등산로를 이루고. 동쪽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며, 낙동강 상류의 지류인 죽계천(竹溪川)의 수원이 되는데 이 계곡은 등산로로 사용됩니다.

비로봉에서 죽계천을 따라 내려가면 석륜광산(石崙鑛山)이 있고, 이곳을 지나 더 내려가면 초암사(草庵寺)가 있습니다.. 석륜광산에서 북동쪽으로 고개를 넘어 내려가면 계곡이 아름다운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이곳에는 석천폭포(石川瀑布) · 성혈사(聖穴寺) 등의 명소가 있습니다.

비로봉에서 남서쪽으로는 4km 가량 비교적 평탄한 고위평탄면이 나타나는데 이를 따라 내려가면 연화봉(蓮花峰)이 있고, 그 중간에 국립천문대가 있습니다. 이 산의 남쪽 약 4km 거리에 죽령(竹嶺)이 있으며 제2연화봉의 동쪽 비탈면에는 희방사(喜方寺) · 희방폭포 등이 있고, 더 내려가면 국도와 중앙선 철도의 희방사역이 있습니다.. 소백산 부근에는 예로부터 산삼을 비롯한 약초가 많고 정상 일대는 주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씨 속에서 모두 건강하게 산행을 해주신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